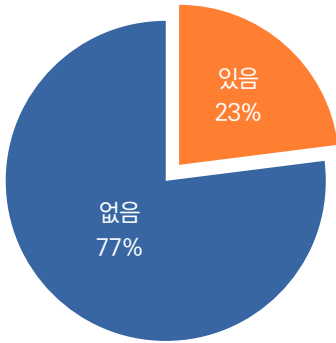




한국인 4명 중 1명, 주변인의 자살로 인한 사별 경험!

- ▶ 한겨레21과 한국심리학회가 '자살 사별 경험'과 '주변인의 자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' 등에 관해 전국 만 19~69세 성인 2,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해당 결과를 발표하였다. 그중 '주변인의 자살 사별 경험 여부'를 묻은 결과, 한국인 4명 중 1명(23%)은 '있다'고 응답했다.

[그림] 주변인 자살 사별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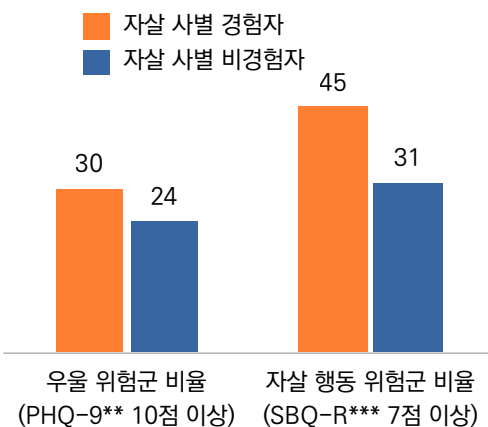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겨레21, 자살 사별, 한국인 4명 중 1명은 경험했다 기사 참조, 2023.08.18. (https://h21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54273.htm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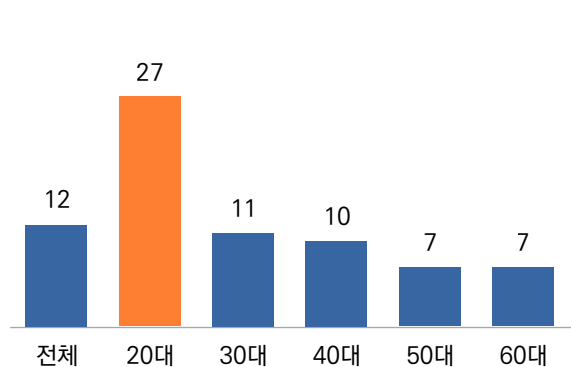
◎ 자살 사별 경험자의 우울감·자살 행동, 사별 비경험자에 비해 높아!

- ▶ 자살 사별 경험 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'자살 사별을 경험한 경우'와 '경험하지 않은 경우' 각각의 우울 위험군 비율과 자살 행동 위험군 비율을 측정하였다. 그 결과, 자살 사별 경험자가 '우울감', '자살 행동' 비율에서 자살 사별 비경험자보다 1.2~1.5배가량 더 높았다.
- ▶ 한편 자살 사별 경험자 중 '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'고 응답한 비율은 12%에 불과했고, 연령별로는 20대가 정신건강 서비스 참여에 타 연령대 대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우울감, 자살 행동 위험군 비율 (%)



[그림] 자살 사별 뒤 정신건강 서비스 받은 경험률 (자살 사별 경험자, %)



*자료 출처 : 한겨레21, 자살 사별, 한국인 4명 중 1명은 경험했다 기사 참조, 2023.08.18. (https://h21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54273.html)

**용어 설명 :

'PHQ-9, Patient Health Questionnaire-9': 우울증 선별검사는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위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일반적으로 0-4점 정상범위, 5-9점 가벼운 우울증, 10-14점 중간정도 우울, 15-19점 약간 심각한 우울, 20점 이상을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함

'SBQ-R, The Suicidal Behaviors Questionnaire-Revised': 자살 행동 척도(자살 위험성평가)는 과거의 자살 행동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4문항(자살생각과 자살 시도, 자살생각빈도, 자살의 의사 전달과 자살 의도, 자살 가능성에 대한 자기평정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7점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함